

물에 대한 기억과 그 문화

- 제주바다를 중심으로 -

김새미오*

목 차

1. 들어가며
2. 제주와 제주바다
3. 제주도 물에 대한 인식과 그 문화
 - 1) 단절과 초월 사이
 - 2) 삶의 공간으로서의 바다
 - 3) 단물에 대한 기억
4.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제주바다를 중심으로 물에 대한 기억과 그 문화에 대해 논술하였다. 제주 사람들에게 바다는 주변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사람들의 인식에서 제주 바다가 어떻게 열리고 또 닫혀졌는가를 살펴보았다. 제주바다는 탐라시대에 활발히 열린 공간이었다. 조선초기까지도 바다는 제주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이었다. 조선 인조시기 출륙금지령이 시행되면서 제주바다는 닫힌 공간으로 변하였다. 조선말기가 되어서야 이 조치가 조금씩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독특한 경험으로 제주바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층위로 인식되었다.

외지인에게 제주바다는 단절과 신선의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제주는 험악한 유배지였다. 바다 자체가 두터운 창살이었다. 바다를 이용한 제주유배형은 조선시대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 제주는 바다로 인해 단절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외지 사람들이 편히 오갈 수 없었다. 이에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신선의 공간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절과 신선이라는 양면성은 결국 험악한 제주바다가 만들어낸 층위라고 하겠다.

바다는 험했지만, 제주 지역사람들에게는 떠날 수 없는 삶의 공간이었다. 제주에서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E-mail : kimsaemio@hanmail.net

남자들은 공물을 바치기 위해, 과거를 치르기 위해, 장사하기 위해 바다를 왕래했다. 표류는 제주사람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상에 가까웠다. 표류로 인한 효자와 열녀들도 적지 않았다. 해녀들은 공물을 받치기 위해 바다 밭을 해매었다. 이들에게 제주바다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다.

제주바다와 함께 달달했던 단물의 추억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주도 시내는 대부분 건천이기에 샘물이나 용출수를 길어서 먹었다. 이때 물허벅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렇지만 남자이든 여자이든 괴롭기는 매 일반이었다. 쌀농사를 짓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 역시 제주에서는 독특한 것이었다. 제주는 대부분 밭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물은 삶의 공간이자 생명의 원천이었다. 현재는 문화공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주제어: 제주바다, 출륙금지령, 단물, 유배, 신선, 표류

1. 들어가며

문화는 인간 삶의 총체이다. 문화는 그 지역의 환경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환경은 일상과 연결되고, 일상은 다시 문화로 이어진다.

제주도는 섬이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본토를 왕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바다를 건너야만 했다. 대한민국의 다른 섬과는 달리 제주도는 가까운 곳이 아니다. 당시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과거 제주 사람들에게 바다는 외부세계와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었고, 동시에 외부세계를 단절시킨 검푸른 벽이었다. 그렇기에 제주바다는 상반되는 이미지들이 다양한 층위를 가지면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주는 늘 바다를 보면서 사는 곳이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은 귀했다. 제주의 대부분 시내는 乾川이다. 많은 비가 쏟아질 때 잠시 흙탕물이

지나는 정도이다. 대부분 빗물들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흘렀다. 그러다 잔 물과 교차하는 해안에서 민물이 솟아난다. 그 민물은 제주사람들의 생명수였고, 지금 역시 그렇다.

많은 연구자들이 제주바다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 중 표류에 관한 글이 가장 많다.¹⁾ 대부분 역사학적으로 접근한 글이다. 문학 분야에서는 제주 신화와 설화에서 보이는 해양교류에 주목한 글이 확인된다.²⁾ 한문학 분야로 한정해보자면, 제주의 물을 중심으로 문화적인 방면으로 진행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문학 자료를 중심으로 제주바다와 물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한문학 자료의 성격상 신화자료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제주바다의 성격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먼저 제주바다를 중심으로 물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식을 정리하겠다. 제주바다는 국가의 행정조치에 따라 열린 공간인 경우도 있고, 닫힌 공간이기도 했다. 그 조치에 따라 제주사람들의 인식을 좌우했음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다.

이어 한문학 자료에 보이는 제주도 물에 대한 기억을 살펴보겠다. 바다에 관련한 문화적 현상을 확인한 후, 제주도 단물에 대해 알아보겠다. 바다에 관련해서는 “단절과 초월”·“삶의 공간”의 2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접근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바다와 단물에 대한 기억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

1) 표류에 관한 연구는 너무나 많고, 본고의 핵심주제가 아니어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는다.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표류연구로는 왕천천(2017)·김나영(2018)의 것이 참조된다.

2) 신화를 통한 문화와의 관계는 특히 삼성신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바다를 통한 문화의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허남춘(2016)의 연구가 참조된다.

화현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해보도록 하겠다.

2. 제주와 제주바다

바다는 열려있는 공간이며, 동시에 닫혀있는 벽이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연근해의 섬인 경우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눈에 선명히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 바다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제주는 탐라·탁라·탐모라 등으로 불렸다. 탐라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어진다. 탐라가 어떤 형태의 나라였는지는 문헌기록이 많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신화연구자들은 삼성신화를 근거로 탐라가 고대국가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있는 유물이 많다고 할 수 없고, 전해지는 문헌도 빈약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외부와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탐라는 분명 해양세력이었다. 고려시대 탐라는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을 다스렸다. 『고려사』에는 탐라의 고려조정에 대한 조회기록을 특기하였다. 당시 탐라는 고려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라시대 제주바다는 비교적 열려있는 자율 공간이었다.

탐라시기 원나라와 고려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금은 타율적인 모습으로 바뀐다. 원나라는 탐라총관부를 설치하면서 제주에 목마장을 설치하였다. 그 당시 말은 전투는 물론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었다. 원나라에서는 탐라의 말을 원했다. 탐라의 입장에서는 타율적인 형태이지만, 바다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었다. 고려 역시 말이 필요했었다. 원나라이든 고려이든 탐라의 조공을 원했고, 이는 모두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다. 원명

교체기 말을 둘러싼 갈등으로 제주에서는 목호의 난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말은 제주의 특산물이었다. 조선초기 역시 바다를 통해 말이 진상되었다.

명하여 이제부터 濟州에서 사사로이 進上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만약에 誠心으로 진상하는 자가 있어도 1필을 넘지 못하게 했다.³⁾

위 인용문은 『태종실록』의 기록이다. 제주에서 조정에 말을 바쳤던 기록이다. 말이 특산물이었기에 제주사람들이 너나없이 말을 바쳤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은 인용문처럼 이를 적절히 통제하였다. 생각해보면 당시 바다를 건너 말을 바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당시 제주에서 비교적 여유로웠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인용문에서 “사사로이”란 말을 보건대, 당시 제주바다는 결코 닫힌 공간이 아니었다.

“鮑作人의 일을 지난 번에 宰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은 본래 濟州 사람들입니다. 제주는 토지가 瘠薄하고 產業이 넉넉지 못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도망가서 오로지 海物을 채취하여, 이것을 판매하여 생활합니다. 지금 만약 독촉하여 본고장으로 돌려보내게 한다면, 저들이 틀림없이 실망할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그대로 存撫하는 것이 편안하겠습니다.”하였다.

知事 許琮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해물을 채취하고 판매하며 살아갑니다. 간혹 여러 고을의 進上을 供給한다 하여, 守令들이 고의로 戶籍에 편입시켜 백성을 만들지 아니하고, 평민들도 간혹 저들 사이에 섞여 한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거짓으로 倭服을 입고 왜말을

3) 『太宗實錄』 卷31, 太宗 16년 5월 丁酉. 113면. 命自今, 禁濟州私進上馬匹, 如有誠心進上者, 不過一匹.

하며 몰래 일어나서 도적질을 한다.’고 하니,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마땅히 모두 本土로 돌려보내서 後患을 막아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저들이 과연 도적질하는 폐단이 있기는 하나, 한결같이 평민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비록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더라도 반드시 즐겨 따르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원망과 틈이 생길 것이다. 저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濟州 守令들이 어루만져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수령에게 알려 다시 돌봐주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라.”⁴⁾

인용문은 『성종실록』의 기록으로 제주 포작인들에 관한 사항이다. 포작인이란 전복과 물고기 등을 잡아서 진상하던 사람들이었다. 인용문에 보듯, 이들은 제주를 떠나 본토의 섬에 거처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먹을 거리를 구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제주를 떠나 본토를 기웃거린 것이었다. 본토 사람들은 이들을 “頭無岳·頭禿·頭禿也只·頭毛岳”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한라산 꼭대기인 백록담에 나무가 없어서 그렇게 불렀다. 이를 굳이 해석하자면, “제주것·제주놈”정도가 될 것이다.

『성종실록』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다른 지역의 문제가 될 정도로 제주출신 유랑민이 많았다. 둘째, 이들을 잠수를 통한 해산물 채취 및 배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 셋째, 이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통제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4) 『成宗實錄』卷178, 成宗 16년 윤4월 辛卯. 9면. 應又啓曰: “鮑作人之事, 往者命議宰相. 此輩本濟州人也, 濟州土地瘠薄, 產業不裕, 逃散全羅·慶尙地面, 專事採海, 鬻販資生. 今若督令還本, 彼必失望. 臣謂仍令存撫爲便.” 知事許琮啓曰: “此輩採海, 賣買以生, 或以供諸邑進上, 守令以故不編戶爲民, 齊民亦或投彼中作僮. 人言此徒詐爲倭服倭語, 竊發作耗, 其漸不可長也. 臣謂宜悉還本土, 以杜後患.” 上曰: “彼等果有草竊之弊, 然不可一以齊民治之. 雖令還本, 必不樂從, 反生怨隙. 彼人之流移, 由濟州守令撫御乖方耳. 其諭守令, 更加撫字, 俾勿出來.”

제주유랑민들은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해안가에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종종 도적으로 변신하기도 하였다. 실록을 살펴보면 일본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바다에서 진상품을 털기도 했다. 이들은 해산물 채취는 물론 배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 늘 바다에서 살기에 물길에도 밝았다.

제주 유민들은 전라도·경상도 해안과 심지어 중국의 海浪島 지역까지 떠돌았다고 전해진다. 당시 팍팍했던 그들의 삶을 반증하는 것이다.⁵⁾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제주를 떠날 수 있었다.

기록의 이면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 제주도내에서 세력이 있든 없든, 배만 있다면 제주사람들은 타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어쩌면 조선전기 제주바다는 제주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하나의 열린 공간이었다.

이후 임진란을 기점으로 상황은 조금씩 변한다. 지속된 전란 등으로 인해 왕래가 적어졌다. 가뭄과 폭정 등으로 지역 인구 역시 격감하였다. 이에 제주포구에서는 관리들의 감시도 심해졌다. 제주바다는 평온했다. 하지만 바다는 조금씩 닫혀가고 있었다.

濟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며, 육지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軍額이 감소하였다. 비국에서 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⁶⁾

인용문은 『인조실록』의 일부이다. 이른바 “출륙금지령”의 시작을 알리는 기록이다. 이 조치 이후 제주바다를 가장 많이 건넌던 것은 말과 굴이었다. 이 시기 서양세력은 동쪽 바다로 밀려났다. 효종 대에는 하멜표류와

5) 제주 유랑민에 대해서는 장혜련(2007)의 연구가 참조된다.

6) 『仁祖實錄』 卷 21, 仁祖 7년 8월 乙丑. 342면. 濟州居民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 備局請嚴禁島民之出入, 上從之.

같은 큰 사건도 있었다. 중국 정세 역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조선 정부는 바다를 꼭꼭 닫았다. 표류된 중국사람들을 통해 당시 정세를 엿들으며 명나라에 대한 기억을 되새길 뿐이었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제주 사람들에게도 바다는 닫힌 공간이 되고 말았다. 이 조치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진다.⁷⁾ 현실에서 닫힌 공간은 제주사람들과 본토사람들에게 다른 층위로 나타난다.

닫힌 공간이 다시 완전히 열린 공간을 바뀌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의 힘이 없어지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일제 강점기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항로가 개설되면서 각 지역으로 나갈 수 있었다. 당시 제주와 오사카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君代丸[기미가요마루]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해녀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필리핀까지 왕래했던 기억을 전하고 있다. 이후 대동아전쟁 등의 변란으로 잠시 닫히기도 했지만, 이후 제주바다는 대체로 열린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3. 제주도 물에 대한 인식과 그 문화

1) 단절과 초월 사이

본토와 단절은 제주사람들의 머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다음은 제주도 설문대할망 설화를 구현한 기록이다.

옛날 제주에 雪曼頭姑라고 하는 신녀가 있었는데, 키가 거의 하늘과 나란하였다. 예전에 스스로 말하기를 “만약 내게 잠방이 한 벌을 지어주면 내가

7) 출륙금지령이 언제 해제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공식적인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1800년대 들어 기강이 무너지면서 이 조치도 유야무야되었다고 보고 있다.

대륙과 다리를 놓아 걸어서 다녀서 다시는 배로 다니는 수고로움을 없애주겠다.”라고 하였다. 대저 잠방이 하나의 크기가 면포 몇 백동이어서 제주사람들이 힘에 부쳐 그 요구에 맞춰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끝내 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 제주 동쪽 조천곶이 다리를 만들던 유적이라고 한다. 또 제주도 곳곳에 이름있고 기괴한 것 중 큰 돌과 큰 유적에는 반드시 曼頭姑의 유적이라고 한다. 건강부회가 심하다.⁸⁾

인용문은 『심재집·잠동산이』에 실려 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와 본토를 연결시켜주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제주사람들은 할망의 요구를 맞추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가 아직도 본토와 동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에 남아 있는 큰 자연물은 설문대할망의 유적이라고 전한다는 것이다. 유학을 배웠던 심재 김석익은 이를 건강부회라고 규정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채록되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⁹⁾ 유학을 배웠던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설화에는 기층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나타나는 제주사람들의 인식은 본토와의 단절이다. 그 단절의 이면에는 바다 건너 큰 세상에 대한 섬사람들의 뜨거운 갈망이 녹아 있다.

본토와의 지리적 단절로 인해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주는 유배지로 활용되었다. 제주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본토사람들에게도 제주는 단절된 곳이었다. 형벌을 받은 유배인들에게 바다는 단절 그 자체

8) 金錫翼, 『心齋集』·『雜全散異』. 濟州古有一神女, 號稱雪曼頭姑, 身長幾與天齊, 嘗自言曰: “若裁我一裙襠, 則我必連橋於大陸, 可使徒步往來, 而無復有舟楫之苦也.” 大抵一襠之大, 可費綿布幾百疋, 而土人力絀, 不能酬應其求, 故橋竟不成, 而今州東有朝天串, 是其作橋遺跡云. 又本島隨處, 或有巨石巨跡之可名可怪者, 則必稱曼頭姑之遺跡, 傳會之甚也.

9) 설문대할망에 관해서는 현승환(2012)·허남춘(2014)의 연구 참조된다.

였다. 다음 인용문은 제주교학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沖庵 金淨(1486-1521)의 시이다.

한 움큼의 탐라 섬
관 쓴 자라처럼 봉 떠있구나
고개들면 해와 달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모두 검푸른 파도뿐
가을 빛깔 황량한 터에 우거지고
남쪽 짙은 안개 바다 언덕에 가득하구나
멈출 줄 알라는 경계를 지키지 못해 부끄러운데
이소경에 의탁할 수 있어 다행이라네
一撮耽羅島 浮空若冠釐
舉頭猶日月 入眼盡溟濤
秋色荒墟莽 蠻煙悄海臯
顧慙知止戒 幸托遠遊騷¹⁰⁾

충암은 기묘사화로 錦山·珍島를 거쳐 1521년 8월에 제주도로 들어왔고, 제주도에서 사사되었다. 충암은 제주도에서 『海島錄』을 남겼다. 이 시에는 “8월21일 제주에 도착한 후”라는 부제가 있다.

위 시에서 보이는 ”파도”·“짙은 안개”·“바다언덕”는 모두 다른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荒·悄”라는 시어는 제주를 바라보는 유배인의 마음을 적실히 드러내었다. 유배인들에게 제주바다는 결코 낭만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유배인들에게 바다는 자연이 만든 두터운 창살이었다. 단절 그 자체인 셈이다.

이런 단절은 호기심과 상상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없었

10) 金淨, 『沖庵集』, 「一撮, 八月二十一日到濟州後」.

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에서는 종종 제주도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표현되곤 하였다. 특히 예전부터 한라산은 삼신산 중 하나로 언급되었고, 본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관심의 이면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동경이 있다. 다음은 金綴(1577-1625)의 시이다.

구름을 뚫고 가는 돌길 걸음걸이가 위태로운데
비 온 뒤 하늘 기운 말끔하게 개였구나
산이 높아 쌓였던 눈 봄 지나도 남아 있고
바다는 넓어 긴긴 바람 종일토록 불어댄다
학을 타고 현포로 가는 길 잃지는 않았으나
피리 불고 머물며 적송자를 기다린다
이제부터라도 신선술을 배우고 싶으니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기 늦음을 한탄하지 아니하네
많은 산 개미 독과 같고 바다는 술잔 같다
머나먼 곳에서 긴 바람이 다리 종아리 밑으로 불어오는데
정상에 밤 달 떠오르기를 기다려서
요대에서 춤추는 현학을 혼자서 보노라
石磴穿雲步步危 雨餘天氣快晴時
山高積雪經春在 海濶長風盡日吹
鶴駕不迷玄圃路 鳳簫留待赤松期
從今欲學滄霞術 歸去人間莫恨遲
衆山如垤海如杯 脚底長風萬里來
直待峰頭明月夜 獨看玄鶴舞瑤臺¹¹⁾

위 시는 김치가 한라산 정상에서 지은 「登絶頂詩」이다. 그의 문집에는

11) 『增補耽羅誌』, 「登絶頂詩」.

없고, 『탐라지』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한때 京鄕에서 애송되었고, 李元翼·李植 등이 극찬했다고 전해진다. 김치는 광해군 1년(1609)에 제주 판관으로 도입했고, 다음 해에 떠나갔다. 김치는 제주에서 선정을 베풀어 지금도 일컬어지는 名宦이었다. 제주신화인 차사본풀이나 설화에서도 실 제인물로 등장한다.¹²⁾

시는 한라산에서 보이는 경관을 보며 신선이 된 듯한 느낌과 호방한 기상을 아스라이 표현하였다. 시는 4행씩 3단락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락은 맑은 한라산의 모습을 그렸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한라산 꼭대기인 백록담에서의 흥취를 신선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호방한 기상과 함께 홀로 느끼는 정취를 담아내었다.

이 시에 사용된 어휘인 “鶴駕·鳳簫·玄圃·赤松子·滄霞術·玄鶴·瑤臺”는 모두 신선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다. 김치는 단절된 공간 제주도에 서 다시 동떨어진 한라산 정상에서 신선의 흥취를 느꼈던 것이다. 김치는 산문작품으로도 『遊漢拏山記』를 남겼다. 이 작품 역시 이런 성격이 농후하다.

이런 판 세상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은 김치만의 감정은 아니다. 그 전에 왔었던 林悌·李源祚 등의 문인도 신선의 이미지로 문학작품을 남겼다. 제주문인이었던 李漢雨·金義正등 『瀛州十景』을 창작했던 일련의 문인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확인된다. 이 모두 제주바다의 단절로 인해 만들어진 인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2) 김치에 대해서는 신화와 설화분야에 더 많은 연구가 있다. 『증보탐라지』에서도 차사본풀이를 소개하면서 강림처사와 강림의 항목을 따로 두었다. 제주도설화에도 김치에 대한 기록이 전해진다. 김치의 신화와 설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진옥의 연구가 참조된다. 김치를 제외하고도 제주도 내에서는 이처럼 “신화-설화-문헌”의 형태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매우 독특한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차사본풀이와 김치설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진옥의 연구가 참조된다.

2) 삶의 공간으로서의 바다

외부사람들에게 제주바다는 타자적 대상이지만, 제주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삶의 한 공간이었다. 그것도 죽음이 바로 옆에 상존하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 그렇지만 제주 사람들은 바다를 떠나 살 수 없었다. 이들의 옹골찬 삶이 녹아 있는 곳이 바로 제주바다였다. 다음은 심재 김석익의 『탐라지』 내용이다.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다. [본토는 바다가 극히 험한데 공적인 일, 사사로운 일로 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괴이한 비와 사나운 바람에 늘 표몰하는 일이 발생한다. 늙은 과부와 청상과부들이 농사까지 짓는다.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적은 것이 진실로 이유가 있다.]¹³⁾

인용문은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다”라는 항목이다. 이는 심재의 『탐라지』에만 기록된 사항이 아니다. 『탐라지』라고 명명된 거의 모든 책에서 이 항목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 역시 심재의 것과 유사하다. 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류로 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에 관한 역사기록 몇 줄만 보아도 제주와 표류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직감할 수 있다. 바다를 오가는 일이 주로 남자들의 일이었다. 그 희생 역시 남자들이 많았다. 남자가 적다는 『탐라지』의 기록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의 영역이었다.

바다에 표류하는 남자나, 남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발일을 하는 여자나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인 것은 매 한가지이다. 하지만 표류나 발일 모두 삶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넘어서야만 했다.

13) 金錫翼, 『心齋集·耽羅誌』. 女多男少. [本土海洋極險, 公私運販之船, 絡繹不絕, 而怪雨瘴風, 常多漂沒. 老寡青孀, 每事稼穡, 女多男少, 良有以也.]

제주사람들 중 표류를 통해 글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기 드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제주에서 일본으로 표류했던 鄭敼選의 시이다.

이역 먼 곳에 날려와 돌아갈 기약 아득한데
 홀로 빈 창에 의지한 나그네 마음 고달파라
 하늘에 뜬 나그네 꿈 만리 길 파도
 두견새 달보고 울부짖어 눈물은 천 갈래
 동원 지방에 풀이 푸르러 왕손은 눈물짓고
 서악에 구름이 깊어 나그네 슬퍼지네
 찡한 이별의 마음
 주인은 정중하게 과일을 집어주네
 飄然殊域杳歸期 獨依虛窓惱旅思
 客夢浮天波萬里 蜀禽啼月淚千絲
 東原綠草王孫泣 西岳雲深遊子悲
 多少別懷辛酸處 主人鄭重餽果時¹⁴⁾

鄭敼選(1683~1746)은 제주도 구좌읍 상도리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는 鄭希寬이며, 아들은 鄭泰彦인데, 모두 문과에 합격하였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3대가 문과에 합격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정창선은 숙종33년(1707)에 濟州御史 李海朝가 왔을 때에 吳廷賓·高萬瞻과 같이 과거에 급제하였다. 1718년에는 注書가 되었다. 이 직책은 “堂后官의 직책은 記注를 관장하는 것이어서 實職·假職을 막론하고 모두 淸選에 관계”되었고,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다. 제주촌놈에게 주기 싫었던 관직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치를 담당하고 있던 세자는 정창선에

14) 鄭敼選, 『瀛州風雅』, 「漂到日本客中, 有作, 贈長崎島館主」.

대해 제주에서 문한·인품·문한이 제주도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여
임명한다.¹⁵⁾ 이해에 정창선은 제주도를 왕래하다가 일본에 떠나려가게 된다.

인용문의 시는 長崎島 여관에 머물면서 집 주인에게 준 작품이다. 長崎
島는 일본에 표류된 사람들을 조선으로 보내기 위한 공간이었다. 뿐만 아
니라 이곳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상선들이 오가는 국제무역항
이었다.

시에서 정창선은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과 이국의 나그네를 따스하
게 대접하는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飄然”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표류당한 자신의 상황을 말하였다. “殊·杳·
獨·虛·惱·淚”의 글자는 자신의 심정을 여과없이 나타내고 있다. 표류
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던 힘든 상황을 느끼게 한다. 후반부에서는 長崎島
의 집 주인에게 느끼는 고마운 마음과 이별하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표류사건의 경우 표류민에 대해서 그 신분이 확인되었을 때는
서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적등을 초월한 보편적인 인류
의 마음이었다. 제주도 역시 供彼庫를 두어 타지역 사람들의 표류사건에
대비했었다. 표류는 바다를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에 가까웠던 것이다.

제주의 효자·열녀등도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는 다른 독특한 면모이다. 다음은 제주의 열부인 宋德寶의 처 文氏에 대
한 華西 李恒老가 지은 傳의 일부이다.

문씨는 出身인 元章의 딸이다. 16세에 한량 宋德寶에게 시집가서 시부모
를 매우 효성으로 섬겼다. 집이 가난하여 샅일을 하며 충심으로 부양하며 게
으르지 않았다. 함께 산 지 4년 되던 해 德寶가 일로 바다에 나갔는데 돌아오
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죽은 것으로 여겼다. 문씨가 애통해하며 미망인으로

15) 『숙종실록』 44년 1월 5일조, 1월 7일조.

자처하고 때를 넘겨도 옷을 바꿔 입지 않았고, 해가 지나도 머리에 빗질도 하지 않았다. 1년이 되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확실하다 생각하여 곧 문을 닫고 단식하다 죽었다. 빈례를 할 때에 해조류와 소라껍질이 갑자기 관면에 두루 생겨나서 마치 물에 잠겨 있었던 것 같으니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하였다.¹⁶⁾

이 傳은 梁憲洙의 『荷居集』에도 「文氏孝烈記」로 기록되어 있다. 양헌수는 제주목사를 지냈고, 화서의 문하였다. 傳의 내용은 남편 덕보가 바다에서 표류하다 죽었고, 1년 후 문씨가 단식하여 죽었다. 입관할 때 해조와 소라껍질이 관 표면에 생겼고, 이에 사람들이 이를 열녀로 보고한 것이었다. 심재 김석익 역시 열녀 문씨에 대해 시를 남긴 바 있다.¹⁷⁾

제주에서 바다와 관련한 열녀·효자에 관한 기록이 제법 전하고 있다. 효자 朴繼崑은 사서도에 표착했다가 부서진 나무 판자에 부모와 이별하는 글을 띄워 보냈다. 이 판자가 제주에서 발견되어 박계곤을 구해왔고, 이어 정려되었다. 박계곤의 효성은 딸과 손자에게도 이어진다. 이 밖에 곽지리의 金天德·北村里 金汝彬의 아내 高氏·遮歸村 康士喆 아내 高氏·제주목 尹邦彦의 아내 金氏 모두 제주바다를 통해 열녀로 정려된 여인들이었다.¹⁸⁾

바다가 사람들을 집어삼켜도 사람들을 떠날 수 없다. 바다는 이들에게 치열한 삶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해녀의 탄식을 그려낸 작품이다.

16) 李恒老, 『華西先生文集』, 「孝烈婦文氏傳」. 文氏出身元章之女. 十六, 嫁閑良宋德寶, 事舅姑甚孝. 家貧傭賃乞假, 忠養不懈. 居四年而德寶以事浮海而出, 因不返, 鄉里以爲死. 文氏痛之, 以未亡人自處, 逾時不易衣, 經歲不櫛髮. 暮年, 知溺水死無疑也, 卽閉戶不食以殉. 殯時, 見海藻螺殼, 忽遍生棺面, 若經沉水然, 人異之.

17) 金錫翼, 『心齋集』, 「奉和孝烈文氏旌閭韻」.

18) 『增補耽羅誌』, 「烈女」; 「孝子」.

어려서부터 자맥질 배워 배를 띄워 확인하고
 열여섯 나이에 격군에게 시집갔지
 바다는 모두 우리 집 뜰과 같은데
 같은 밭에서 일하며 따로 사는 삶이여
 少學潛泳驗槎浮 二八歸于格軍家
 海國都是吾庭際 同田爲業各生涯¹⁹⁾

위 시는 해녀 宋氏의 시로만 알려져 있다. 16살에 격군에게 시집 간 해녀. 얼마나 서로 그리워했겠는가? 바다에서 배를 다루는 남편이나, 바다 속에서 전복을 채취하는 해녀, 모두 바다에 살고 있건만, 늘 따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다.

제주에서는 늘 해산물을 채취해서 이를 진상하였다. 특히 전복·미역을 많이 바쳤다.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을 鮑作人 또는 鮑作汗이라고 하였다. 포작인들은 매우 고통스러웠다.²⁰⁾ 그렇다고 나라에 진상하는 물품을 소홀하게 할 수도 없었다. 늘 바다에 살면서 진상을 하며, 삶을 일구어 갔다. 제주에서는 해녀들이 이일을 거의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의 역할 같은 삶은 바로 제주바다에서 이루어졌다.

3) 단물에 대한 기억

표류할 때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은 바닷물이다. 제주도는 섬이고, 바다라는 큰 물을 가까이 하고 있다. 하지만 물이 귀한 섬이었다. 제주는 마치 바람에 떠가는 섬과 같다. 제주에서는 마실 수 있는 물을 “돈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달콤하다는 의미이다. 『탐라지』에서도 물에 대한 기록이

19) 『瀛州風雅』, 『鮑作嘆』.

20) 포작인에 대해서 김나영(2008)의 논문이 참조된다.

자세하다. 물에 대한 기억과 인식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은 심재 김석익이 기록한 것으로 東濟院泉에 관련한 사항이다.

제주 동쪽 9리에 있다. 諺傳에 호종단이 와서 산수의 기운을 누르는데, 이곳을 누르려 하였다. 물의 정령이 농부에게 고하길 “그릇 하나에 물을 소 멩에 두어 도롱이로 덮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농부가 그 말에 따라 행하였다. 이윽고 호종단이 와서 묻기를 “소 멩에 언덕아래 도롱천이 어디인가?”하니, 농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호종단이 인하여 탄식하며 떠나갔다. 그러므로 이쪽부터 서쪽은 기세가 놀리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²¹⁾

인용문은 호종단 설화의 일부이다. 東濟院泉은 일명 ‘동주원물’라고도 한다. 현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 院이 있었고, 여기에 샘물이 있었다. 이어 심재는 “살피건대, 이로부터 동쪽으로 성산까지 100여리 사이는 泉源이 없다. 혹자는 옛날에는 泉井의 모양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말랐다. 또 바닷가에 혹 泉源이 있지만, 역시 조수가 오가는 곳에 불과하다. 호사가들이 이설을 만들었는데, 건강부회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주의 물에 대해서는 『탐라지』에서 지속적으로 기록된 사항이었다. 주요한 지리정보였고, 제주도인 경우 물 나오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늘 흐르는 시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제주는 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었고, 그 물을 집으로 옮

21) 金錫翼, 『心齋集·耽羅誌』. 東濟院泉. 在州東九里. 諺傳, 胡宗旦來壓山水之氣, 壓將至此. 水精告於田夫曰, 請挹一器水, 置之牛軛下, 覆之以蓑衣則幸. 田夫依言而行之. 旣而宗旦至問曰, 牛軛原下蓑泉, 何在? 田夫曰, 未聞也. 宗旦因咄嘆而去. 故自此以西, 得免於壓氣云. ○ 按, 自此東至城山百餘里之間, 無一泉源, 或有舊時泉井樣子, 而今皆枯涸. 且濱海或有泉源, 而亦不過乎與潮相通. 好事者爲此說而附會之也.

겨가야만 했다. 제주에서는 강물이 없기 때문에 용천수나 우물을 식수로 음용하였다. 『증보탐라지』에는 「泉池」의 항목으로 마을마다 있는 단물을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金淨이 와서 봤다는 判書井까지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바다와 같은 넓은 물이 있었지만, 정작 지역주민에게 물은 보이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을 길어 옮기는 것 역시 만만치 않았다. 다음 시는 麓下 李禮延의 시이다.

죽을 때 까지 괴롭게 해야하는 일
물 길는 군인만 한 것이 없다네
구부정하게 물통을 짊어지니
뼈마디는 너덜너덜
偏苦終身役 無如汲水軍
負筒來偃僕 鶉鵲勞其骨

제주에서 물을 길는 도구는 허벅이라고 불렀다. 『증보탐라지·풍속조』에는 “물 길는 도구가 허벅이다. 즉 水桶이니 토기병[土瓶]과 같은 것을 대 바구니[竹籠]에 넣고 질방으로 걸러 메고 여자가 등에 지고 물을 운반한다.”라고 하였다. 물허벅은 「풍속조」에서 첫 번째 항목에 놓을 정도로 독특한 풍속이었다. 지금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예현의 문집은 전하지 않는다. 이 시는 南萬里의 『耽羅誌』에 별도로 기록되어 「耽羅八詠」의 이름으로 전한다. 耽羅八詠은 “貢橘·踏田·織涼·牧子·畚漢·杵歌·汲水·採鰯”으로 구성되어 있다.

“뼈마디가 너덜거린다”는 표현에서 그 고통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위 시에서는 군인들이 물을 길는 일을 그려냈지만, 집안에서 물을 길는 일은 아낙들의 몫이었다. 군인들에게도 힘들 일이었으니, 여성에게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낙들은 물허벅을 지고 집안에 있는 물독에 물을 가득 채워야

만 했다. 崔溥는 여인의 물허벅을 노래하기도 하였다.²²⁾

제주도내의 시내는 거의 건천이다. 평상시에는 거의 말라 있다가 폭우가 내리면 그제서야 바다로 흘러내린다. 서귀포 몇몇 지역은 늘 흐르는 곳이 있는데, 서귀포 강정천이 그 중 하나였다. 다음은 艮齋 田愚의 문인이었던 正齋 高炳五(1899~1972)가 읊은 시이다.

청산의 가운데 맑은 시냇물 하나가 열리니
 손님들 갓끈을 씻으며 세속을 잊는다
 닭과 개가 있는 먼 울타리 보슬비 비 내리는 풍경
 어룡은 옛 굴에서 급하게 우레소리 내는구나
 밭을 개간하고 물을 대니 노랫가락 나오고
 돌을 늘어놓아 자리를 만드니 귀신이 깎은 듯
 시냇가에서 누가 큰 도를 논할까?
 지극히 가까운 것을 취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네
 靑山中坼一溪清 行客濯纓忘世情
 鷄犬遠籬微雨色 魚龍古窟急雷聲
 開田灌水民歌出 鋪石爲茵鬼削成
 川上誰家論大道 取斯切近錫嘉名²³⁾

정재 고병오는 서귀포 대정읍 상모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학자였다. 강정천은 제주에서 드물게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곳이다. 강정지역에서는 작은 면적이거나 논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22) 『增補耽羅志』·『風俗』. 革帶芒鞋葛織衣, 石田茅屋矮柴扉, 負瓶村婦汲泉去, 橫笛堤兒牧馬歸.

23) 高炳五, 『正齋集』, 『題江汀東川』.

만든 곳은 “握近川”지역이었다. 별다른 건설장비가 없던 시절, 그야말로 마을의 모든 힘을 쏟아 이룬 성과였다.

위 시는 시인이 악근천 지역을 지나며 지은 작품이다. “밭을 개간하여 물을 대니 노랫소리가 나온다”는 구절에서 이들의 기쁨을 잘 느낄 수가 있다. 당시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 것은 쌀 때문이었다. 제주에서 쌀밥을 “곤밥”이라 불렀다. 표준어로는 “흰밥”으로 대역하며, 고운 밥이란 의미이다. 제주도에서 곤밥은 제사·명절때나 아니면 먹기 힘들 정도로 귀했다고 한다. 거친 밭작물로 끼니를 채우다 부드러운 쌀밥에 혀가 녹아났던 것 모두 제주 단물의 달달했던 추억이라 하겠다.

4. 나오며

지금까지 한문학 자료를 중심으로 제주도 물에 보이는 인식과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자료의 한계로 인해 꼼꼼한 분석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부족하나마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자연이 그렇듯 사람들의 조치와 인식에 따라 요동쳤다. 제주바다인 경우 탐라시대와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열린 공간이었다. 조선 인조 대부터 출륙금지령이 시행되면서 제주바다는 닫힌 공간으로 변하였다. 조선후기 이 조치가 조금씩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를 통해 외래인에게 제주바다는 두 가지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절의 이미지와 신선의 이미지이다. 제주는 험악한 유배지였다. 바다 자체가 창살이었기 때문이다. 제주바다의 단절로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기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신선 이미지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문화적 양면성은 결국 험악한 제주바다의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바다가 험했지만, 지역사람들에게는 떠날 수 없는 삶의 공간이었다. 제주에서 남자들은 공물을 바치기 위해, 과거를 치르기 위해, 장사하기 위해 바다를 왕래했다. 제주에서 표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 가까웠다. 이에 제주바다가 만든 효자, 열녀들도 적지 않았다. 해녀들도 중앙에 바치는 공물을 마련하기 위해 바다발을 해매었다. 이들에게 바다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었다. 옹골찬 제주사람들의 삶 역시 제주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바다와 함께 달달했던 단물의 추억도 함께 정리하였다. 제주도의 시내를 대부분 건천이기에 샘물이나 용출수를 길어서 먹었다. 이때 물허벅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렇지만 남자이든 여자이든 괴롭기는 때 일반이었다. 쌀농사를 짓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 역시 제주에서는 독특한 것이었다. 제주는 대부분 밭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민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의 물에는 공동체사상이 있었다. 제주바다는 마을마다 정해진 구역이 있다. 마을마다 바다를 맡아서 같이 관리했던 것이다. 샘물에도 이런 공동체 인식이 존재했었다. 예전에 동네에서 혼인식 날짜가 정해지면 몇 일간은 잔칫집을 위해 샘물을 잠시 쓰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런 물에 담긴 공동체사상등은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한 번쯤은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둘째, 현재 표류는 거의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매우 많이 남아 있다. 표류로 인해 사망했을 때 하는 무속의례등도 강하게 살아 있다. 표몰한 사람을 잊지 못해 虛墓를 쓰거나, 해안가에 비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아직 자

료가 치밀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다. 이런 제반 사항은 지역과 전공을 떠나 복합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바다를 비롯한 해양문화에 대해 분야를 나누고 차근차근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인문학적 접근은 물론 해양레저 등에 이르기까지 의미있게 연결시켜 활용해야할 것이다. 인문학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제주바다는 열려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북쪽을 향해 편파적으로 열려있다.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들 한다. 과거의 바다를 고민하고 앞으로의 바다를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南峰集』, 김치, 단국대학교 도서관.
- 『鳴巖集』, 한국문집총간 175.
- 『心齋集』, 김석익, 제주문화, 1990.
- 『瀛州風雅』, 오문복, 이화출판사, 2004.
- 『正齋集』, 고병오, 문중소장.
- 『增補耽羅誌』, 담수계, 제주문화원, 2005.
- 『耽羅誌』, 탐라문화총서(5), 남만리편찬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荷居集』, 한국문집총간 속131.
- 『華西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304.
- 강진옥(2010), 「金緻 인물 형상화 방식에 나타난 <차사본풀이> 서술시각 -『해동이적·보』 소재 <김치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34면.
- _____ (2010), 「<金緻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 문제」, 『비교민속학』 41, 비교민속학회, 327~361면.
- _____ (2010),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金緻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187~225면.
- _____ (2014), 「저승여행담을 통해 본 제주도 무가 <해심곡>과 <차사본풀이>의 관계양상」, 『구비문학연구』 39, 한국구비문학학회, 29~71면.
- 김나영(2008),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역변동」,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7), 「조선시대 濟州島 漂流·漂到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왕천천(2016), 「朝鮮의 中國 漂流民 송환 방식 변화와 淸初 동아시아 해역」,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해련(2007),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윤(2013), 「제주도 해양문화 전통의 단절과 계승」, 『탐라문화』 42, 탐라문화연구소, 75~100면.
- 허남춘(2016),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 탐라문화연구소, 7~41면.
- _____ (2014), 「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과 변모양상」,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

문학회, 311~348면.

현승환(2012), 『설문대할망 설화 재고』, 『영주어문』 24, 영주어문학회, 91~118면.

K C I

〈Abstract〉

Memories about Water and Its Culture
– Focusing upon Jeju Seawater

Kim, Saemio^{*}

This paper examined memories about Jeju seawater and culture concerning the water. The seawater presented differently to Jeju islanders along with changing social circumstances. In Tamla age, Jeju seawater was a vividly open space. Until the early stage of Chosun period, the water was a place where diverse activities were freely made by islanders. Jeju seawater transformed into a closed space during the Incho period of Chosun by the embargo for people going to the mainland. The embargo appeared to smooth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Such different experiences with Jeju seawater led to people perceiving the water in diverse ranged spectrums.

Jeju seawater was identified holding two images to mainlanders. They were the images of both isolation and taoist hermit. Jeju was a harsh place of exile. The water itself was a thick bar. The punishment of exile to Jeju was among harshest damnations during Chosun period. Jeju was a closed place with tough seawater; accordingly, mainlanders found it difficult to travel to Jeju safely and conveniently. Concerning this, Jeju was often represented a place of taoist hermit with Halla Mt. It can be said that the dual aspects of isolation and taoist hermit are eventually social constructions that are presented by hostile sea water of Jeju.

Jeju seawater was a place where islanders could not leave but to live with even if the water was tough and harsh. In Jeju, male islanders made a return trip to the mainland through seawater in order to pay a tribute, to do an exam for government posts, and to sell things. Drifting in

^{*}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eju Nat'l Univ.
/ E-mail : kimsaemio@hanmail.net

seawater was not a strange event. Rather it was an experience very commonly and frequently made for islanders. Drifting brought some people to become a devoted son and a virtuous woman. Women divers wandered through under seawater land in order to find seawater goods to pay a tribute. It can be assumed that Jeju seawater was a very painful place to them. Even if so, the water was a place where intense fight for survival was made by islanders and could not be avoided by them.

This paper also provided memories regarding soft water of Jeju. As most of Jeju city is geographically conditioned with dry streams, people had to collect soft water and flow-out water. For this, water basket (called mulheobuk in Jeju island dialect) was used very efficiently. However, to bring soft water many miles to home with the basket was a harsh work for both male and female islanders. Jeju is lacked of enough fresh water so that cultivating rice was very difficult. While the memories regarding reservoirs were uncommonly observed, such memories are quite unusual in Jeju as people in Jeju mostly did dry-field farming.

In Jeju, water was not only a life space but also the source of life. It has now turned into a cultural space. It is a time to reflect upon such change in perceptions about water.

Key words: Jeju seawater, Embargo for going to the mainland, Soft water, Exile, Taoist Hermit, Drift

본 논문은 2019년 2월 11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9일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20일 게재를 확정하였음.